



IMF, 세계경제 회복까지 최소 10년 필요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IMF는 세계경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정상궤도에 오르기 까지 최소 10년 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.

- 현재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, 일본이 모두 재정 문제를 안고 있으며, 미국 등은 글로벌 불균형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임.
 - 미국은 재정문제와 더불어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, 일본 역시 재정 조정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음.
- 그러나 최근 우려되고 있는 중국경제가 세계경제 회복을 오랜 기간 동안 저해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음.
 - 경제성장률이 이전보다 둔화되었으나 중국정부가 자산 거품을 잘 통제하고 있어 중국경제가 경착륙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

■ IMF는 유럽 재정위기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국 이기주의를 탈피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함을 지적

- 먼저 독일 등의 핵심 국가와 주변 국가 간의 무역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주변 국가가 자생할 여력을 갖게 됨.
 - 독일 등이 물가상승¹⁾과 임금상승을 받아들여 자국의 무역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주변 국가들의 무역경쟁력을 강화하여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주장

1) 예를 들어 유럽중앙은행(ECB)이 물가상승률 목표를 2%로 유지할 경우 핵심 국가들은 2% 이상으로 물가상승률 목표를 높이고 주변부 국가들은 2% 이하로 물가상승률 목표를 낮추어야함. 독일은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나 현재의 수요 상황이나 ECB의 물가안정화 노력을 감안하면 독일이 물가상승 목표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.

- 부채 축소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경제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을 옥죄는 재정긴축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 함.
- 아울러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국 이기주의를 버리고 유로지역의 재정통합과 경제정책 통합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.

■ 또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의 글로벌 불균형(global imbalance)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함을 주장

- 선진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신흥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신흥국들이 자국 통화 평가절상을 받아들여야 함.

(RTTNews 등, 10/3)